



무안국제공항 외부 전경(왼쪽). 입국하는 관광객들.

무안국제공항 '서남권 거점공항' 향해 비상 준비

무안국제공항이 하늘길을 연 것은 2007년 11월 8일이다. 광주공항에서 국제선만을 가져온 상태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12년만인 2019년 24개국 45개 노선 5,195편의 항공기가 운항, 비로소 국제공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됐다. 하루 평균 14편 이상의 비행기가 오가며, 89만 명의 승객으로 공항이 북적인 것이다. 중국, 일본, 대만은 물론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마카오, 필리핀, 몽골,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10개국 19개 정기노선과 라오스, 싱가포르, 캄보디아, 괌 등에 14개

항, 청주국제공항과 함께 커피타임(야간 이착륙 제한) 없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경쟁력이 있는 공항이지만 2022년 기준 대한민국 국제공항 중 운항편수가 가장 적은 공항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위기에서 전남도는 광주공항 국내선의 조속한 무안국제공항 이전을 요청하는 한편 아시아 각국은 물론 러시아, 미국(괌)으로의 정기·부정기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0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유인책(인센티브) 제공으로 최대한 내 정기노선을 유지할 것"을 직접 지시하기까지 했다. 그는 "코로나 이전인 지난 2019년 과감한 유인책 정책으로 제주항공 등 노선을 유지해 이용객이 90만 명을 넘었다"며 "지금처럼 공항 재 활성화를 위한 초기 단계에선 항공사와 공항 이용객 등에게 과감한 유인책을 제공, 정기노선 유지에 최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독려했다.

현재 무안국제공항에는 베트남 2개 노선이 운항중이며, 5월 대한항공이 일본 나고야 노선, 하이에어가 일본 기타큐슈 운항을 예고하는 등 노선이 하나둘씩 늘고 있다. 6월과 7월에는 중국 상하이, 몽골 울란바토르 등의 노선도 예정돼 운항 재개 1년여 만에 베트남, 일본, 몽골, 중국 등 4개국 6개 노선의 국제선과 제주·김포 등 국내 2개 노선 등 8개 노선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국제 정기선 유지에 위해 제주항공, 대한항공을 상대로 항공기 운항 재정 손실 보전 및 추가 인센티브 제공 의사를 전달하는 등 신규 노선 추가에 안간힘

을 쏟고 있다.

또 항공사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신규 노선 유치와 국내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주 노선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지역 안배 슬롯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 슬롯은 특정 시간에 특정 항공사가 활주로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즉 항공사별 활주로 사용 가능한 시간을 말한다.

공항 기반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관리동 신축, 여객청사 새단장은 2022년 말 완료했고, 국제 중앙거리 노선 취항이 가능한 활주로 연장 사업은 2025년 완료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청주국제공항은 충남, 충북, 대전 등 범충권 사도가 합심해 300만 명이 이용하는 공항으로 성장한 만큼, 무안국제공항도 무안군이나 전남만의 공항이 아닌 광주를 포함한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육성한다는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호남권 핵심 기반시설인 무안국제공항의 조속한 활성화를 최대 걸림돌은 국제선과 국내선의 기능 분산에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주 군 공항이 전남도 어느 지역으로 이전하든 광주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반드시 이전해야 하고,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와 광주시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2021년까지 광주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에 통합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전남도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25년이면 충청 이남에서 접근이 용이해 무안

국제공항이 급성장할 것으로 보고, 최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광주 민간공항이 이에 맞춰 순차적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청주국제공항을 대전·세종·충남·충북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중부권 중심공항으로 위상을 확고히 한 만큼 광주보다 적극적으로 무안국제공항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충북은 물론, 대전·충남도 2007년 청주국제공항에 국제노

2007년 개항...2019년 45개 노선 5195편 운항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 3개월간 폐쇄
지난해 6월 국내선 첫 취항...국제선도 운항 재개

국 26개 부정기노선을 거느렸던 무안국제공항은 2020년 100만 명 승객 돌파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이 덮치면서 하나 둘 노선이 사라졌고 급기야 3월 잠정 폐쇄하고 공항 문을 닫을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 이후 공항은 무려 2년 3개월여 동안 문을 열지 못하다가 2022년 6월 24일 무안-김포 간 국내선 첫 취항을 시작으로 7월 20일부터 4개 항공사가 5개 노선 주 28편의 국제선을 운항을 재개했다. 그동안 국내선을 가진 광주공항은 승객 수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운항을 계속했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무안국제공항은 인천국제공항, 제주국제공

지자체 합심 年 300만 이용하는 청주공항 벤치마킹
광주·전남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육성' 공감대 필요
道 "호남고속철 2단계 개통 전 광주 국내선 이전을"

선을 신규 개설하는 항공사에 결손금을 보전해 주는 '신규국제 노선 개설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2008년에는 대전시 중심 학계·계·시민단체·언론계 등 각계인사로 구성된 '청주국제공항 살리기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전시청에서 청주국제공항까지 거리가 55km, 광주시청에서 무안국제공항까지 거리는 그보다 짧은 44km"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지난 2007년부터 '청주공항이 살아야 충청권이 산다'며 청주공항 활성화를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71
www.cdu.ac.kr

하늘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항공 특성화 대학-초당대학교

초당대학교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380

Tel 1577 2859